

대한조선학회의 인터넷 기반 논문심사 체계 SNAK WebReview System의 사용법

이 창 섭 <대한조선학회 편집위원장>

1. 서 언

21세기는 인터넷 시대라고 한다. 은행과 회사의 업무도,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최근의 우리의 사회 생활을 살펴볼 때 큰 특징은,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어 대부분의 직장인이 컴퓨터를 일상 생활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 컴퓨터가 LAN으로 전세계의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의 의견 교환, 공동 연구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 의견 교환, 실시간 공동 연구도 가능하게 되었다.

대한조선학회의 편집을 맡은 위치에서 이렇게 변하는 세상의 환경을 학회 논문집의 편집에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 생각되어, 학회 편집위원회 주관 하에 논문집의 편집과 관련된 업무를 인터넷화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의 첫 번째 시도로 국문 논문집의 투고에서부터 심사과정 등을 관리하게된 학회편집위원회의 Intranet으로 WebReview(그림 1)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WebReview는 원칙적으로 논문의 투고에서부터 출판 결정까지의 모든 심사업무를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하는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즉, 논문 투고자인 저자의 초기 참여로부터 저자에게 심사 결과가 통보되는 끝 단계까지 모든 업무가 인터넷상에서 해결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Intranet이 주는 장점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논문 심사과정 참여자 사이의 거리 장벽이 없다. 학회의 논문심사 관련 업무는 전임이 아닌 파트타임 편집이사에 의해 수행되며, 특히 대부분의 편집이사는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본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공동 편집업무를 LAN에 연결된 Intranet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원거리에 산재해 있는 편집이사 사이의 거리가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더불어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상의하기 위하여 일일이 시외전화를 걸어야 하는 수고가 없어진다(더우기 부재중, 회의중으로 통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Internet의 효력은 생각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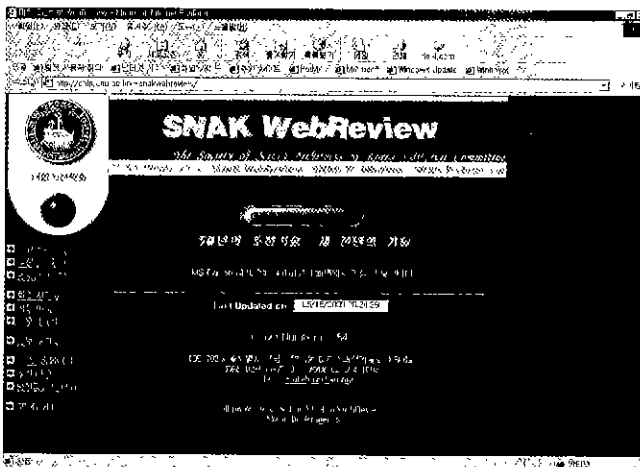


그림 1. SNAK WebReview의 홈페이지

특집 | 대한조선학회의 인터넷 기반 논문심사 체계 ...

더 클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논문을 투고한 저자, 논문을 평가하는 심사자의 지리적 위치가 심사과정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둘째, 논문 원고의 우송과 관련된 시간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논문을 사무실에서 쉽게 받아볼 수 있고, 심사결과를 즉시 Intranet을 통하여 학회의 편집 담당자에게 마우스 클릭 하나만으로 전달이 가능하므로, 시간적인 절약이 상당히 기대된다. 우체국에 가서 우편으로 논문을 발송하는 전통적인 수고는 원천적으로 생략될 수 있다. Intranet의 활용은 이와 관련된 시간을 절약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심사 관리의 편리성, 용이성, 정확성이 보장된다. 위의 두 가지 장점은 관련 당사자가 LAN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e-mail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서류의 전송만을 위해 LAN을 활용하는 것은 인터넷의 기본적인 기능만을 활용하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작동 가능하며 논문 심사와 관계되는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에 이 데이터베이스와 대화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간단한 조작만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심사 관련 업무가 쉽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SNAK WebReview는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직접 구동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이지만, 참여자의 컴퓨터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지식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여자의 컴퓨터 능력은 Windows 환경에서 한글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정도면 충분하다. 프로그램의 개발단계에서 컴퓨터의 운용체계를 자동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에 관련된 논문, 서류 등을 자동적으로 분류, 저장될 수 있도록 관리 업무를 체계화, 효율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SNAK WebReview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현재 학회의 모든 편집이사, 편집 담당자가 e-mail을 사용하고 있고, 논문 심사위원의 95% 이상이 e-mail 주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e-mail 주소를 갖고 있지만 매일 생활화하지 않고 있는 심사위원이 많이 있어, Intranet의 성공 여부는 이들의 인터넷 생활화의 정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물론, 논문 투고자의 대부분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은 1999년도에 학회의 국문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심사과정에 소요된 평균 시간을 보여준다. 전체 논문의 약 50%는 1심후 저자 수정을 거쳐 약 85일 후에 출판이 결정되고 있으며, 나머지 약 50%가 2심후 저자 수정을 거쳐 약 162일만에 출판이 결정되고 있다(3심후 출판 결정되는 편수는 소수임). 표에 의하면 1심의 심사기간은 42일로 되어 있으나, 이중 약 10일은 우편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라 추정되며, 1심 수정에 소요된 우편 왕복 배달 기간이 약 10일 정도라고 가정하면, 1심 후에 출판이 결정되는 논문의 심사기간이 약 65일로 단축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동일한 논리를 2심후 출판되는 경우에 적용하면, 120일 정도로 단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편집전용 Intranet의 가동으로 출판까지의 소요일수를, 20 ~ 40일 단축할 수 있을 뿐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우편 비용의 절약도 가능하다.

본고는 편집위원회에서 Intranet으로 사용하게될 소프트웨어인 SNAK WebReview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표 1. 기존 우편 방식에 의한 논문심사 단계별 소요일수

평균 소요일수	일수	출판 결정까지 소요 일수	일수
접수후 의뢰일	2일		
1심 심사기간	42일		
1심 저자수정기간	79일	1심후 출판결정까지	85일
2심 심사기간	28일		
2심 저자수정기간	19일	2심후 출판결정까지	162일

2. SNAK WebReview를 이용한 논문투고, 심사방법

SNAK WebReview의 논문투고, 심사, 관리방법을 알기 위하여 우선 논문의 투고에서부터 심사자의 결정, 심사결과 분석, 저자와 심사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논문 심사와 관련한 편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만, 논문을 투고하고 논문집에 게재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저자, 논문을 심사만하고 다른 과정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심사자 등은 전체 과정을 알 필요가 전혀 없다. 이들은 WebReview의 극히 제한된 기능만을 알아도 훌륭하게 인터넷 기반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즉,

- 1) 논문 투고자의 입장에서 2.3절의 **저자**로 표기된 부분만의 사용법을 알면 된다.
- 2) 논문 심사자의 입장에서 2.3절의 **심사자**로 표기된 부분만의 사용법을 알면 된다.
- 3) 편집이사 및 학회 편집담당자도 유사하게 표기된 부분이 최소로 요구되나, 과정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는 WebReview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위하여, 논문의 접수에서부터 심사자 결정, 심사진행, 심사완료에 이르는 심사흐름을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2.1. 학회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판정 절차

논문의 심사자는 논문을 최종적으로 다음 4가지 중의 하나로 판정한다. 즉, 1) 논문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의 (게재가) 판정, 2) 심사자의 의견을 참조하여 논문에 수정을 가한 후에 게재하도록 하라는 의미의 (수정후 게재가) 판정, 3) 심사자의 의견을 참조하여 논문에 수정을 가한 후에 다시 심사를 하겠다는 의미의 (수정후 재심) 판정, 4) 논문의 게재가 부적절하다는 의미의 (게재 불가) 판정이다. (수정후 게재가) 또는 (수정후 재심)의 판정도 심사자와 저자 사이의 논문 수정부분에 대한 의견 조정이 끝나면, 최종 판정은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귀착된다.

대한조선학회는 한 논문을 우선적으로 2명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자의 최종 판정이 두 심사자 모두가 (게재가)면 논문집에 게재가 가능하며, 두 심사자 모두 (게재불가)이면 그 논문은 학회 논문집에 올 수 없다. 그러나, 두 심사자의 최종 판정이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뉘게 되면, 제 3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하게 되며, 제 3 심사자의 최종 판정에 따라 다수인 두 심사자의 의견을 좇아 게재 여부가 최종 판정된다. 다음은 본 고에서 사용할 심사 결과에 대한 약어를 보이며, 이 약어는 심사 절차를 보여주는 순서도에서 활용된다.

심사결과 약어

- 1) 가: 게재가
- 2) 수가: 수정후 게재가
- 3) 수재: 수정후 재심
- 4) 부: 게재 불가
- 5) 가가: 두 심사자가 게재가
- 6) 부부: 두 심사자가 게재 불가

2.2. 논문 심사 순서도의 기호

아래의 논문 심사 순서도(그림 2)는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 기호를 사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순서도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일단 심사 과정에 익숙해지면, 순서도가 명확해질 것이다. 이의 이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호를 도입하기로 한다.

순서도 기호 설명.

- 1) i1, i2, ...: SNAK WebReview의 실행 명령부분을 대표하기 위하여 숫자를 함께 하여 구분한 것이다. 일반적인 Windows 프로그램에서와 같이 SNAK WebReview의 밑줄이 그어있는 설명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 부분이 자동적으로 실행된다.
- 2) a1, a2, ...: WebReview의 해당부분을 실행할 실행 주체가 되는 실행자로, 논문의 저자, 학회의 편집 담당,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논문 심사자가 해당 WebReview 명령의 실행자가 된다. 각 실행자는 편집위원회의 접근 규칙에 의해 WebReview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차별화 되어 허용된다. 예를 들면, 논문 투고 저자는 e-mail로 본인에게 통지된 논문번호를 이용하여 투고일시, 제 1, 제 2 심사자의 심사 상태, 심사 기일 (물론 심사자의 이름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심사 결과 등을 WebReview에서 직접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논문의 심사 결과는 알 수 없으며, 심사자도 심사 번호(논문번호와 별도로 정하여진)를 통하여 자기가 심사하는 논문의 결과만을 알뿐 다른 심사자의 심사결과나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 등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다.
- 3) e1, e2, ...: <실행자>가 [제출] 또는 [기록] 등과 같은 단추를 선택하였을 때, 자동으로 e-mail이 관련자에게 발송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e-mail에는 보통 심사 논문과 심사자의 심사결과서 양식이 첨부되며, 심사와 관련한 안내문, 필요한 e-mail 주소 등 내용이 포함된다. 물론, 동시에 심사에 관련된 서류들이 편집 담당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파일명을 갖도록 자동적으로 이름지어진다.
- 4) h1, h2, ...: e1, e2, ...등에 의하여 자동으로 e-mail이 발송되지 않는/못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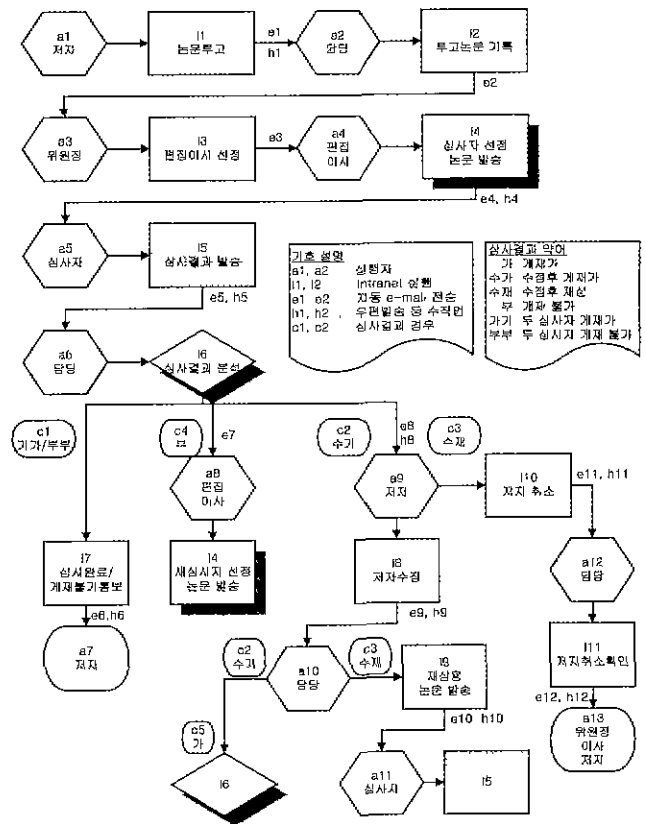


그림 2. SNAK WebReview에 채택된 학회 논문 심사 순서도

경우에, 직접 우편물의 발송, 수작업에 의한 서류 정리의 행위가 대신 일어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5) c1, c2, ...: 심사된 논문이 판정된 바에 따라 다음 심사 단계를 분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나타낸다. 여기에는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와 관계없이 두 심사자의 의견이 같은 경우 (c1, 가/가(부)), 한 심사자의 의견이 (게재불가)인 경우 (c4, 부), 최소한 한 심사자의 의견이 (수정후 게재)인 경우 (c2, 수가), 또는 최소한 한 심사자의 의견이 (수정후 재심)인 경우 (c3, 수재)의 4가지 경우가 있다. 또한 (c2, 수가)가 저자의 수정을 거친후에 자동적으로 (게재가)가 되는 (c5, 가)가 있다.

2.3 SNAK WebReview의 심의 절차 및 사용법

그림 2는 SNAK WebReview의 논문 심사 순서도를 보인다. 지금까지 학회에서 전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심사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WebReview는 이 과정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절차가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기록되어 관련자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논문 투고자와 심사자, 편집이사, 학회 편집 담당자의 편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편집 담당자와 WebReview 개발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아주 상세한 부분은 개발자의 해설 부분에 심기로 한다.

여기서부터 그림 2의 논문 투고, 심사 순서도를 따라가며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기로 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WebReview 각 단계의 명령을 수행하는 부분을 명령 그룹 집합의 명칭으로 표기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실행자는 <a1, 실행자>식으로 표현하며, WebReview 화면 상에 나타나는 실제 명령어는 [신규논문 투고]의 경우처럼 괄호와 밑줄로 표기하기로 한다.

- 1) 저자: 논문을 투고하기 원하는 <a1, 저자>는 SNAK WebReview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창의 왼쪽에서 [신규논문투고]항목을 찾아서 이를 마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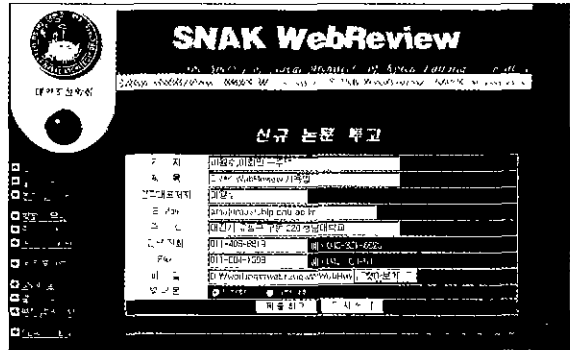


그림 3. WebReview에서 저자가 직접 논문을 투고하는 대화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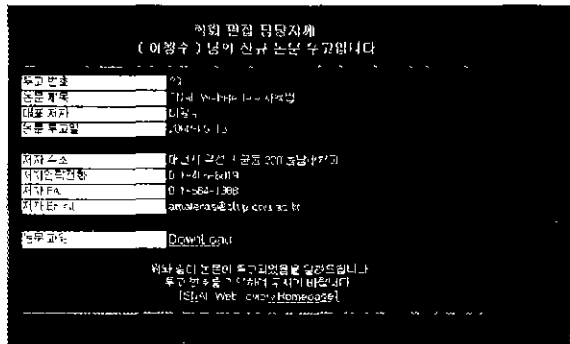


그림 4. 저자로부터 편집담당자에게 도착한 E-mail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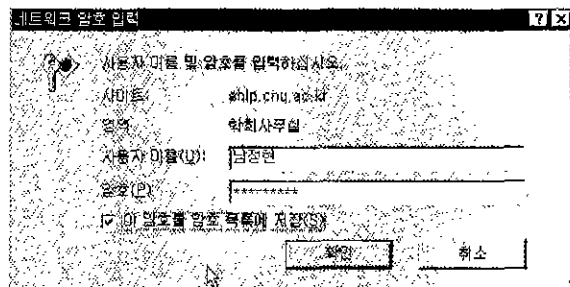


그림 5 WebReview에 사용자 ID와 암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하는 예

특집 | 대한조선학회의 인터넷 기반 논문심사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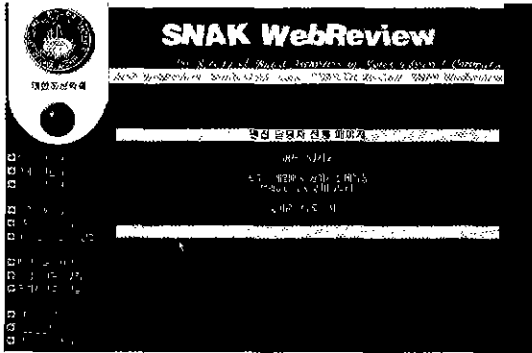


그림 6. 편집 담당자가 로그인하여 처음 나타나는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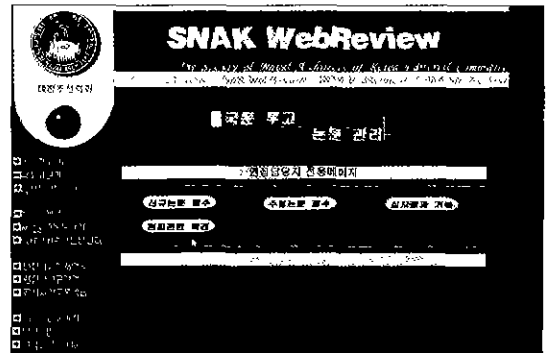


그림 7. [국문투고논문관리] 선택으로 나타나는 편집담당 전용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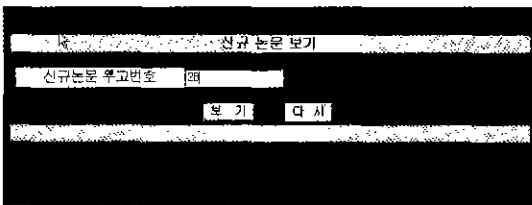


그림 8. 신규 논문 접수번호 입력 창을 보여주는 대화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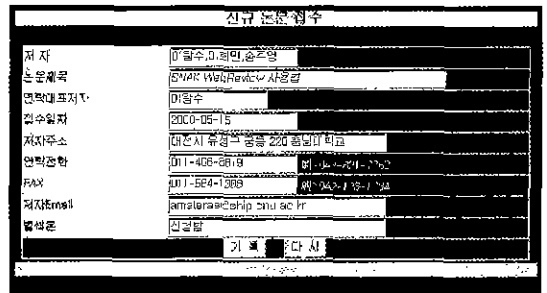


그림 9. 논문 접수번호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입력이 된 예

로 클릭하여 {i1, 논문투고}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에 보이는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필요한 항목을 입력한 후에 논문을 첨부하여 [제출] 단추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e-mail {e1}을 통하여 학회의 편집담당{a2, 담당}에 논문이 접수된다. 여기서, {e1, h1}은 e-mail을 통한 접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래식의 우편을 접수로 대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2) 편집담당: <a2, 담당>은 논문 투고를 e-mail {e1}을 통하여 통보 받은 후에(그림 4), WebReview {i2, 투고논문 기록}에서 [학회사무실]을 통하여 사용자 ID와 암호를 입력함으로써, WebReview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허락을 받는다(그림 5). 이어서 그림 6에 보는 바와 같이 편집담당자 관리페이지가 나타난다. 이어서 [국문투고논문관리]를 클릭하면,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은 논문관리의 전 과정을 운용할 편집 담당자의 전용페이지가 나타난다. 여기서 새로 논문을 접수하기 위하여는 오른쪽 창의 좌측에 있는 [신규논문 접수]를 클릭하면, 그림 8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e-mail에 함께 보내진 논문의 임시번호만 입력하고 [보기] 단추를 클릭하면,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투고자의 논문관련 데이터가 그림 9에 보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편집 담당자는 이때 첨부 파일의 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식 접수를 결정한다. 즉, [기록] 단추의 선택과 동시에 WebReview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자료가 기록되며, 동시에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의 접수를 알리는 e-mail {e2}가 자동으로 전송된다. 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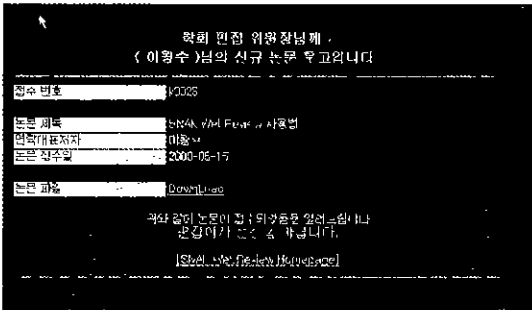


그림 10. 편집담당으로부터 편집위원장에게 전달된 e-m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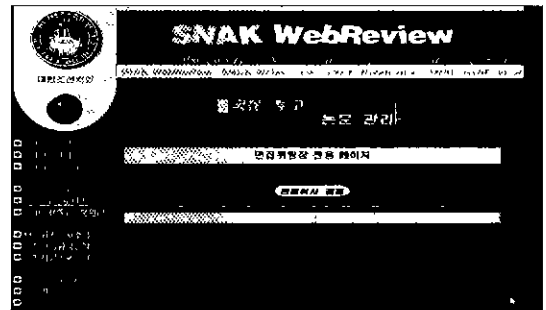


그림 11. 담당편집이사 결정을 위한 편집위원장의 전용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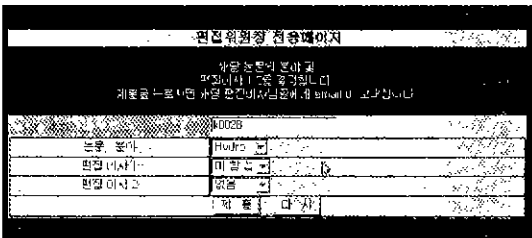


그림 12. 논문의 분야를 고려하여 편집이사를 결정하는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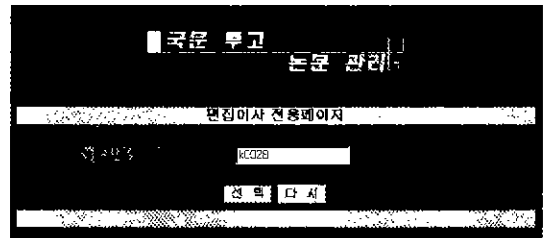


그림 13. 편집이사가 논문의 접수번호를 입력하는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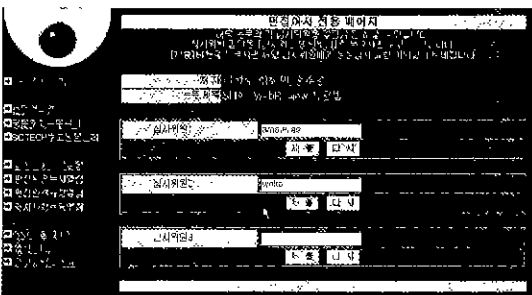


그림 14. 논문 심사자 선정을 위한 편집이사의 전용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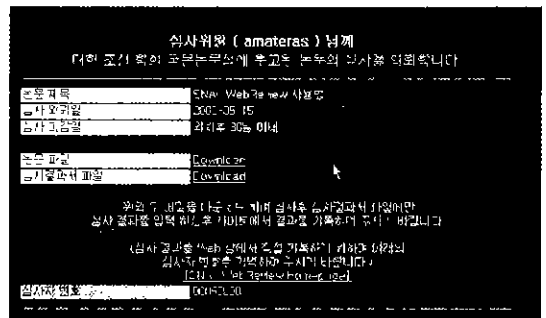


그림 15. 심사자에게 자동으로 전달된 논문심사를 의뢰하는 e-mail

내부적으로는 논문번호, 제 1, 2, 3 심사자를 구별하는 심사자 번호가 자동 부여되며, 이 번호는 이후 심사자의 고유번호, 심사자의 WebReview 접근용 암호 역할을 한다.

- 3) 편집위원장: 그림 10과 같은 e-mail을 받은 편집위원장은 WebReview의 [학회사무실/국문논문관리]를 통하여 사용자 ID와 암호를 넣어줌으로써 그림 11과 같은 편집위원장 전용페이지에 접속하게 된다. 그림 11의 [편집이사 결정] 단추를 클릭함으로써 그림 2의 <a3. 위원장> (i3, 편집이사 선정) 단계를 수행하게 된다. 즉,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문의 제목, 저자 등을 고려하여 논문의 분야를 결정한다. 현재 국문 논문은 3개의 분야(유체 및

특집 | 대한조선학회의 인터넷 기반 논문심사 체계 ...

해양공학, 구조 및 진동/소음, 설계 및 생산)로 나누어 구분하며, 이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담당 편집이사를 선정한다. [제출]단추의 선택으로 자동적으로 해당 <a4, 편집이사>에게 e-mail {e3}가 전송된다. 이때 대개는 편집이사(정)의 선택으로 충분하지만, 편집이사(정)의 부재시에는 편집이사(부)를 선택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4) 편집이사: e-mail {e3}으로 연락을 받은 <a4, 편집이사>는 WebReview 홈페이지의 [편집이사]를 클릭하여, 그림 5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 ID와 암호를 입력함으로써 WebReview 데이터베이스에의 접근을 허가 받게 된다. 이어서 [편집이사/국문투고논문관리]를 선택하면,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문의 접수번호를 요구하는 창이 나타난다. 이어서 e-mail {e3}으로 전달된 접수번호를 입력(논문의 고유번호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e-mail {e3}의 해당 번호 부분을 복사하여 붙이도록 권장)한 후에 [선택]단추를 누르면, 그림 14에 보는 바와 같은 논문 심사자를 선정하기 위한 대화상자로 구성된 편집이사의 전용 페이지가 나타난다. (이때, 편집이사는 자기 해당 분야의 허가된 범위에서만 데이터베이스 접근허락을 받는다.) 논문 심사자의 이름을 입력한 후에, [제출] 단추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논문과 관련 서류가 첨부된 전자 편지(그림 15)가 e-mail {e4}를 통하여 <a5, 심사자>에게 전달된다. 심사자 선정을 쉽게 하기 위하여는, 그림 14의 <심사위원 명단보기>를 클릭하면, 그림 16과 같은



그림 16. 심사위원의 전문분야, 연락처, e-mail 주소를 보여주는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명단 화면이 나타나며, 이로부터 세분화된 전공에 따라 최적의 심사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심사자의 이름만을 <심사위원 명단>에서 복사(Cntl+c)하여 그림 14의 심사자 선정을 위한 대화상자에 붙인다(Cntl+v). 그림 16에서 볼 수 있듯이 심사자 데이터베이스는 심

사자의 e-mail 주소를 갖고 있다. 여기서부터 제 1심 심사가 시작된다.

- 5) 심사자: e-mail {e4}로 연락을 받은 <a5, 심사자>는 그림 15에서 보는 것과 같은 e-mail에 첨부된 논문과 관련 서류를 download 받는다. 심사자는 HWP형식의 논문을 인쇄하여 심사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결과는 기본적으로 HWP형식으로 제공된 심사결과서에 관련 페이지, 행을 표기하여 심사사항을 기록한다. 심사자는 본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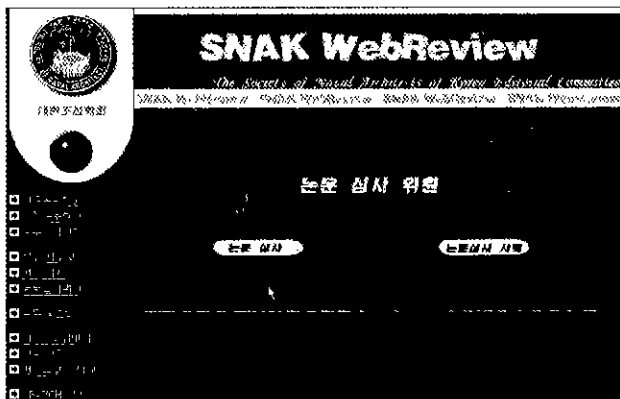


그림 17. 심사결과를 기록하거나 심사자를 사퇴하는 심사자 페이지

직접 WebReview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논문심사위원]을 클릭하여 만들어진 그림 17과 같은 대화상자에서 [논문심사]를 선택하고, 이어 나타나는 그림 18과 같은 논문심사기록 대화상자를 연다. 여기에, 심사자의 이름, 논문의 심사자 번호(난수 발생함수로 생성되어 모든 e-mail에 동봉해 드리는 숫자임)를 적어 넣은 후에 [보기] 단추를 클릭하면, 심사위원 신분을 확인한 후에 그림 19와 같은 화면이 뜬다. 여기에, 심사결과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단추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심사결과가 편집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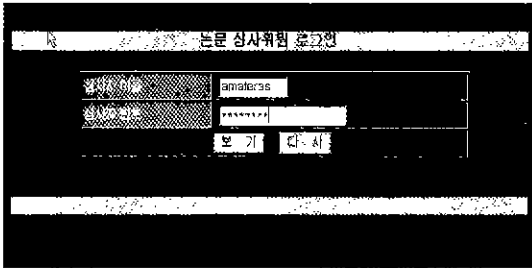


그림 18. 이름과 심사자번호를 이용한 심사위원 검증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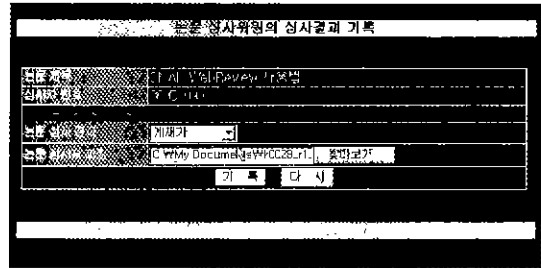


그림 19. 심사 결과를 기록하는 대화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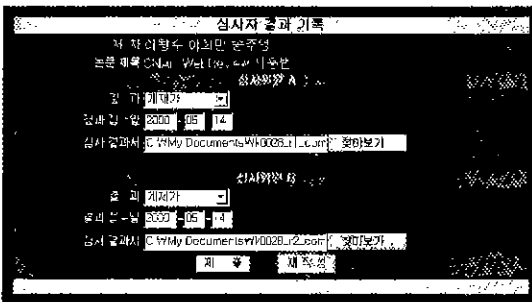


그림 20. 투고 논문에 대해 두 심사자 모두 "제재가" 판정을 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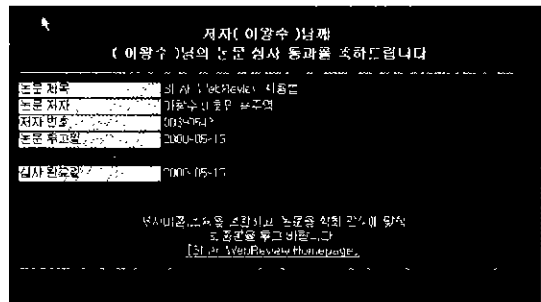


그림 21. 저자에게 투고 논문이 제재 확정되었음을 통보하는 e-m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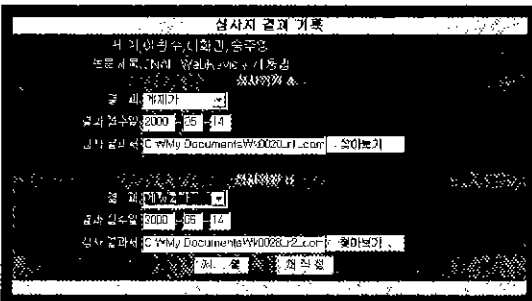


그림 22. 편집 담당 전용 페이지로 새심사자가 요구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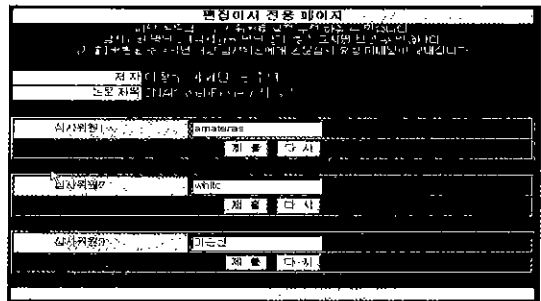


그림 23. 제3 심사자를 선정하는 대화상자

당에게 전송된다. 이 방법은 심사자가 본인에게 주어진 암호같은 심사자 번호 등을 e-mail (e4)의 내용으로부터 복사, 붙이기로 적어 넣어야하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출된 심사결과서는 학회의 임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기록된 후에, 편집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정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다. 이 방법은 심사자가 학회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을 하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며 가장 앞선 미래형의 방법이다.

본인이 심사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그림 17의 논문심사 사퇴를 선택하여 심사권을 학회로 되돌릴 수 있다. 물론 이때에도 심사자 자신의 이름과 e-mail로 보내온 심사자 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특집 | 대한조선학회의 인터넷 기반 논문심사 체계 ...

6) 편집담당: 심사자 2인의 심사결과가 모두 도착하면, <a6, 담당>은 {i6, 심사결과 분석}에서 심사결과를 분석한다. 우선, 심사자가 논문을 평가하는 경우는 4가지(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로 나뉘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문 논문집은 한편의 논문을 우선 2명의 심사자가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두 심사자의 의견이 같거나 다른 경우에 따라 다음의 심사 절차가 결정된다.

(1) (c1, 가가/부부): 2인의 심사결과가 둘 다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경우나, 둘 다 (게재불가)의 판정을 받은 경우는 결과 처리가 간단하다(그림 20). <a6, 담당>은 {i7, 심사완료/게재불가 통보}를 저자에게 그림 21과 같은 e-mail {e6}으로 보낸다. 논문집 게재에 따르는 게재비, 심사비 등이 청구되며, 게재 예상되는 논문집의 권, 호수를 함께 알려줄 수 있다.

(2) (c4, 부): 편집담당: 한 심사자만이 (게재불가)를 판정한 경우(그림 22),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새로 심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편집담당 <a6, 담당>이 심사결과를 기록함과 동시에 <a8, 편집이사>에게 제 3의 심사자 결정을 요청하는 e-mail {e7}이 자동 발송된다.

편집이사: <a8, 편집이사>는 {i4, 새 심사자 선정/논문 발송}에서 WebReview에 접속하여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집이사의 전용 페이지에서 [제3 심사자 선정]을 수행하는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새 심사자를 선정하고 [제출] 단추를 선택하여 논문과 심사결과서를 자동으로 e-mail로 발송한다.

(3) (c2, 수가) 또는 (c3, 수재) : 최소 1인 이상의 심사자가 (수정후 게재가)를 판정한 경우, 또는 최소 1인 이상의 심사자가 (수정후 재심)을 판정한 경우 심사자의 의견과 함께 논문원본을 첨부하여, 저자에게 e-mail {e8}로 송부한다.

저자: 저자가 그림 24와 같은 e-mail로 논문 원본(또는 최신본)과 심사결과서를 받은 후, 논문에 수정을 가한 후에 WebReview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정논문투고]를 클릭하여 e-mail로 보내온 저자번호를 대입하면 그림 25와 같은 대화상자를 얻으며, [제출하기]를 클릭함으로써 수정된 논문을 e-mail {e9}로 접수시킬 수 있다.

편집담당: 이때, 심사자의 판정이 (수정후 게재가)인 판정은 편집담당이 임시 접수된 수정 논문을 정식 접수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c5, 가: 게재가)로 조정되어 {i6, 심사결과 분석 단계}의 자료로 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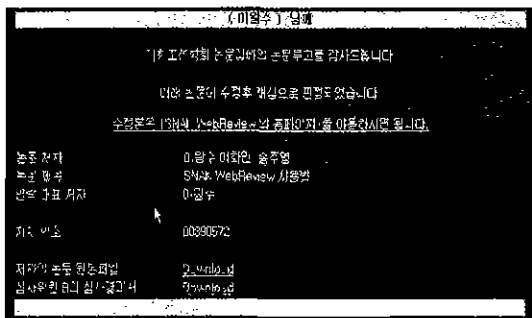


그림 24. 저자에게 논문수정을 요청하는 e-mail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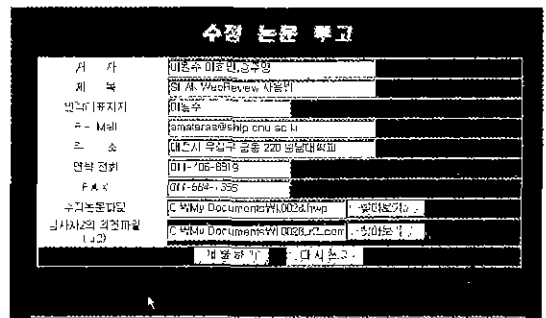


그림 25. 저자가 논문의 수정후 논문을 재 투고하는 대화상자

편집담당: 심사자의 판정이 (수정후 재심)인 경우에는 해당 심사자<a11. 심사자>에게 WebReview의 {i9, 제 심용 논문발송}에서 재심을 위하여 수정된 논문 및 심사결과서 양식이 e-mail {e10}으로 전송된다.

심사자: <a11, 심사자>의 심사결과 발송 및 처리 방법은 {i5}와 동일하다. 재심 과정에서도 심사자로부터 (수정후 재심)을 판정받은 논문은 {i6}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e-mail {e8}을 통하여 제 3심을 시작하게 된다. 그 과정은 재심의 경우와 같이 진행된다. 최고 제 3심까지 WebReview에 자동 기록되며, 제 4심 이후의 경우는 WebReview 데이터베이스의 기타 의견란에 담당자가 직접 기입하며, 보통의 e-mail을 통하여 심사일정을 진행한다.

- 7) **저자:** WebReview의 {i10, 저자 취소}는 저자가 논문을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저자는 심사의 어느 단계에서도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및 투고 취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통 (수정후 재심)인 경우가 많으므로 <a9, 저자>에 의해 취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10, 저자 취소}의 의견은 e-mail {e11}을 통하여 <a12, 담당>에게 연결되며, {i11, 저자 취소 확인} 절차를 거쳐, e-mail {e12}로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저자에게 확인 전자 편지가 전달된다.

3. Intranet 사용과 관련된 Q/A 모음

- **질문:** Intranet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문제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답: 첫째 가장 우려되는 보안문제는 심사과정에서의 투고자, 편집이사, 심사자 사이의 보안문제이다. Intranet의 기본 목적 중의 하나는 논문 투고자가 심사과정의 진행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투고자, 심사위원 상호간의 보안은 지켜져야 한다. 이를 지키기 위하여 한 편의 논문에 3가지의 논문번호(접수번호, 투고자번호, 심사자번호)를 사용한다. 접수번호는 편집 담당의 접수 확인과 동시에 일련번호로 부여되고, 투고자 번호는 투고자가 본인의 논문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하도록 난수 발행함수로 만들어 제공된다. 편집이사의 심사위원 선정과 동시에는 각 심사위원에게 제공되는 심사자 번호가 난수 발생 함수를 써서 생성된다. 투고자는 투고자 번호를 이용하여 논문의 진행 상황을, 심사자는 본인에 주어진 심사자 번호를 이용하여 심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심사자가 B 심사자의 논문 결과 평가내용을 알 수 없다.

둘째로 편집이사 사이의 비밀 관리로 모든 관리자는 로그인 ID와 암호를 통하여야만 WebReview에 접속이 가능하며, 허가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논문에 허가되지 않은 관리자는 접근이 거부되도록 되어 있다.

셋째는 시스템 자체의 보안문제이다. 이는 외부의 해킹 등에 의한 컴퓨터 체계의 손상, 자료의 유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학회의 논문집 관리 체계인 WebReview로서는 이러한 종류의 보안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등의 통상적인 예방조치는 있어야한다. 마찬가지로, Virus 등의 문제도 시스템의 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 **질문:** 논문 투고자가 [제출] 단추를 클릭하자마자, WebReview는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적으로 연결하여 논문번호, 저자번호를 부여하며, 자동적으로 그 저자번호를 저자에게 e-mail을 발송하

특집 | 대한조선학회의 인터넷 기반 논문심사 체계 ...

여 저자가 접수를 직접 확인하도록 할 수 있는지? 현재처럼 수작업 단계를 두는 이유는?

답: 원칙적으로 모든 자동화가 가능하지만, 저자가 WebReview를 통하여 제출한 논문을 편집 담당이 내용을 확인하고 파일의 훼손 여부/잘못 전송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성 확보에 좋으므로, 육안 확인 후에 접수를 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편집 담당이 접수를 확인하면 자동적으로 저자에게 접수 e-mail이 전달되므로 저자는 투고 하루 이내에 접수를 확인할 수 있고, 저자번호를 제공받는다. 이를 따로 기록해 두면, 혹은 e-mail을 그대로 보관해 두면 나중에 WebReview에 접속하여 논문 심사 과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 질문: 편집 이사, 편집 담당자의 암호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답: 맨 처음에는 WebReview 운영자로부터 사용자 ID와 암호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최초로 로그인할 때, 바로 [개인정보관리]를 선택하여 각자가 새로 암호를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만일 암호를 잊은 경우에는 WebReview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새로 암호를 부여받는다.

● 질문: 투고된 논문의 파일이 여러 버전이 존재할텐데 이름을 정하는 규칙은? 이를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나?

답: 이 규칙은 편집 담당자가 알아두면 편리한 규칙이지만, 실제 저자, 심사자가 굳이 알 필요가 없다. 새로운 파일명은 접수번호를 근간으로 새로운 이름을 만든다. 접수번호는 국.영문 논문집에 따라 k/e로 시작하고, 접수연도와 일련번호를 합쳐 예를 들어 k002(2000년에 2번째 접수)로 정해진다. 제1, 2, 3 심사자는 R1, R2, R3로, 1, 2, 3심은 1st, 2nd, 3rd로 구분하고, 심사자의 의견을 적은 심사결과서는 comment로 표기하며, 이 파일에는 투고자의 반박(rebut)을 담은 빈칸의 테이블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k002.hwp는 1심에 사용된 투고자가 제출한 원본이며, 이를 제1 심사자가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정리할 파일은 k002_r1_comment.hwp가 된다. 각 심사자의 비평에 대한 답은 심사자가 작성한 comment 파일(예를 들어, k002_r1_comment.hwp)의 후반부에 저자의 답변을 위한 테이블을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두 심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저자가 논문을 수정하여 학회에 제출하면, WebReview에 의해 자동적으로 k002_2nd.hwp로 명명되며, 이를 제2 심사자가 다시 심사할 경우 심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저자의 comment 파일은 k002_r2_comment_2nd.hwp이 된다.

● 질문: 논문 심사 순서도에서 <a4, 편집이사>에 의해 {i4, 심사자 선정/ 논문 발송을 수행하면, e-mail {e4}에 의해 자동적으로 <a5, 심사자>에게 논문이 발송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만일 e-mail이 안 되는 경우는 <a4, 편집이사>가 직접 논문을 우송하나?

답: 아니다. 편의상 그렇게 표기한 것일 뿐, 이 경우는 편집 담당에게 따로 e-mail을 보내 편집 담당이 논문의 프린트 본을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한다.

● 질문: 투고 논문(여기서는 HWP 파일)이 직접 왔다 갔다 하는지? 예를 들면, 편집이사가 심사자를 선정할 때도 논문의 저자, 제목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내용을 보아야 적절한 심사자를 고를 수 있지 않은가?

답: 파일이 직접 오가지 않는다. e-mail에 download라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내용을 직접 열어볼 수 있으며, 필요하지 않으면 나의 컴퓨터에 기억시킬 필요가 없다.

- 질문: 심사자의 논문심사기간의 단축 방안이 있는지? 심사자에게 심사 시한을 자동적으로 독촉할 수 있는 방안(예를 들면, 시한 1주일 전에 경고 e-mail 발송)을 갖추었는지?

답: 현재 심사기간을 4주로 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1주라도 단축하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심사자에게 자동적으로 독촉 e-mail이 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 운영체계에 너무 중속적이지 않으려는 의도로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

- 질문: 논문 심사 순서도의 투고, 심의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이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교육 또는 상세한 도움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지?

답: 심사 순서도가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논문 투고자는 자기의 해당 부분만을 보면 매우 간단함을 알 수 있고, 심사자는 자기의 해당 부분만을 보면 쉽게 익숙해 질 수 있다. 그러나, 학회의 편집 담당자나 편집이사 등은 전체 시스템에 익숙해져야 WebReview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다. WebReview에는 본 사용설명서를 언제든지 download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각 화면에는 쉽게 도움말을 볼 수 있는 [도움말] 단추를 만들어 둘 예정이다.

- 질문: 논문 심사 순서도의 (6, 심사결과 분석)은 언제 수행되는가?

답: 통상 2명의 심사자로부터 논문 심사 결과가 모두 도착한 직후에 실시한다.

- 질문: 논문 심사 결과 판정이 복잡한데, 제3의 심사자를 선정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나?

답: 한 심사자는 (수정가), (수정후 게재가) 또는 (수정후 제심)을 판정하였는데, 다른 한 심사자가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하여 두 심사자의 의견이 (게재불가)면 심의는 여기서 끝나고, (게재불가)가 아니면, 2심으로 올라간다. 이때, 소수의 견인 (게재불가)의 의견은 무시되고 저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논문 투고자는 이 기간동안 WebReview를 통하여, 논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알 수 있다. 이로서, 제3 심사자의 선정에 따른 심사기간 장기화를 투고자 스스로 확인이 가능하다.

- 질문: 투고자가 심사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나?

답: 현재의 편집위원회 운영방식에 이를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편집위원장, 편집 담당자뿐이다. 다만, 학회 국문논문집의 뒷 표지 내면에 심사위원의 명단이 있고, 이들의 주요 관심 연구분야를 편집이사용으로 정리한 명단이 WebReview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조 가능하다.

- 질문: WebReview 게시판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나?

답: 우선, 통상의 웹페이지에 있는 게시판처럼 동일하게 운영될 계획이다. 논문 투고 및 심사와 관련된 학회

특집 | 대한조선학회의 인터넷 기반 논문심사 체계 ...

회원의 모든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견은 일단 정리되어 학회지의 회원 의견란에 게재될 것이다. 가능한 한 학회 논문집의 논문 심사, 편집방향에 적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질문: 논문과 심사서 등의 자료가 HWP로 작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HWP의 Version차이에
서 오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답: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HWP 97(기능강화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Version사이
의 문제점은 최종 Version을 인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물론 특수한 기능,
특수한 수식 표현들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개별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HWP
의 개발속도가 느린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고있다.

- 질문: 논문 심사자의 심사료는 어떻게 송금하나?

답: 논문심사료는 논문 심사 전 과정이 끝나고, 심사료와 게재료를 학회에서 저자로부터 접수한 후에, 심사자
에게 홈뱅킹으로 송금된다. 이를 위하여 심사자는 심사결과를 기록할 때에 은행계좌번호를 입력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이를 무시할 수 있으나, 한번만 입력해 두면, 다시는 입력 요청이 없으므로, 모든 심사자는
최초에 WebReview에 접속하여 심사결과를 송부할 때에 은행계좌를 입력하는 것이 좋다.

- 질문: 편집이사의 실수로 심사요청서가 동일 심사위원에게 2개이상 연속으로 e-mail로 전달될 경
우에는 어떻게 하나?

답: 이때에는 최종으로 받은 파일의 심사자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편집이사가 심사위원을 선택할
적마다, 심사자 번호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 기능은 심사자를 override해야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설계
한 것이므로 편집이사가 주의를 하여 심사자를 혼란스럽게하지 말아야 한다.



이 창 섭

- 1947년 4월 9일생
- 1979년 미국 M.I.T. 공학박사
- 현재 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교수
- 관심분야: 선박추진,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 E-mail: csleepro@cnu.ac.kr
- 전 화: 042-821-6623